

# ‘코로나 타격’ 외식업계 ‘식자재값 폭등’에 비명

### 광주 전통시장 대파값 전년비 160% 올라...고추·양파·계란도 경증 “매출 회복 못하는 상황에서 빛만 늘어나...음식값 올리는 것도 한계”

“올해 낸 빛만 벌써 2000만원이에요. 코로나19 사태로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 없고, 최근엔 치솟은 식자재 가격에 마진도 남기기 힘들습니다. 정말 딱 죽겠어요.”

광주시 동구 구시청사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한숨부터 내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연말연시 성수기 장사를 망쳤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따라 손님도 크게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값이 크게 오르더니, 대파와 양파, 마늘, 건고추, 쌀 등 음식에 들어갈 주요 식자재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또 고추장을 비롯한 주요 양념 등 주요 식품업체의 잇단 가격 인상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씨는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손님이 줄고 매출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자재와 식

품 등 고점 지출은 크게 늘어 최근 두 달 새 빛만 늘었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음식값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답답한 노릇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에 시달리던 외식업계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 회복은커녕 식자재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원가 부담까지 떠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 카미스(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 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대파 1단의 값은 5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0원에 비해 160%나 올랐다.

이밖에 건고추(600g)는 작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80%나 뛰었고, 간마늘(1kg)도 전년 6000원에서 9000원으로 50% 올랐다. 양파(1kg) 역시 같은 기간 2400원에서 3500원으로 45.8% 증가했으며, 1판에 4800원인 달걀(특란)도 4800

■주요 식자재 가격 동향 (단위:원)

건고추 (600g)	10000	1만8000
간마늘 (1kg)	6000	9000
달걀 (한판)	4800	6860
대파 (1단)	2000	5200
양파 (1kg)	2400	3500

원에서 6860원으로 42.9%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또 쌀(20kg)도 5만1000원에서 11.8% 오른 5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식자재 가격 상승에 이어 식품업계의 주요 제품 가격 인상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고추장 5종의 가격을 평균 9% 인상했고, 소불고기와 돼지불고기 등 주요 양념장 제품도 6% 상당 올랐다. 대상도 정정원 고추장 제품을 7% 상당 인상했으며, 샘표식

품도 통조림 제품의 가격은 35% 상당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에서 고정비 지출이 증가하게되면서 외식업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권 외식업체 연 평균 매출은 1억2122만원으로, 1년 전(1억5906만원)보다 23.8%(-3784만원) 줄었다. 전국 6개 권역 꼴찌일 뿐더러, 가장 크게 감소하는 등 타격을 면치 못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일반음식점 폐업은 1576건으로 전년(1447건)보다 8.9% 증가했고, 휴게음식점은 전년(496건) 대비 무려 17.1% 증가한 58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그룹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박진석 이사는 “1년간 매출 감소가 이어진 데다, 식자재와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은 오히려 늘면서 외식업계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며 “생계를 위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기침체가 더 이어질 경우 자영업자의 쫓겨남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66.01 (+18.51)
↑ 코스닥	949.83 (+6.05)
↓ 금리 (국고채 3년)	1.133 (-0.044)
↓ 환율 (USD)	1123.70 (-6.50)

###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연임



정창선(사진) 흥중그룹 회장이 광주상공회의소 24대 회장에 선출됐다.

광주상의는 18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을 의원·특별의원 71명의 만장일

치로 2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양진석(㈜호원 회장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정 회장의 추대로 이어졌다.

정 회장은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광주·전남이 더 이상 낙후된 도시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현안과 과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미래형 산업구조로 탈바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상의 재정 확충에도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24대 부회장은 송중욱 광주은행장, 김현철 금호고속㈜ 대표이사, 김홍균 남산석유(주) 회장 등 8명을 선출한 것을 비롯, 상임 의원 25명을 선출했다.

감사에는 김형석 남해중합건설(주) 대표이사, 최갑철 삼일건설(주) 회장이 선출됐으며, 상근부회장은 현 최종만 부회장이 연임됐다. 명예회장으로선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을 추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보해 ‘홈술·혼술’ 마케팅 강화

### 배달대행 플랫폼 개발업체 ‘만나플래닛’과 협약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코로나19 시대 급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보해양조는 최근 장성공장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개발 전문업체인 만나플래닛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시대 변화에 따라 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혼자 술을 마시는 등 ‘홈술’ 및 ‘혼술’ 문화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해양조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보해북부주주의 매출이 전년 대비 16% 상당 상승한 원인을 홈술과 혼술 문화의 확산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비대면 시대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만나플래닛과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관계

자는 전했다.

만나플래닛은 지난 2020년 월 배달대행건수 1000만 건을 돌파한 플랫폼 개발 전문업체다. 지난 2014년 배달대행 사업 업계 1위, 국내 대리운전 플랫폼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만나플래닛에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만나플래닛은 온라인에서 식품을 주문할 때 주류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해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인쇄주를 비롯한 소주 제품 외에도 보해북부주주와 매취순, 순희 막걸리, 부러더 소다 등 보해양조가 다양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 산정 ‘대광로제비앙’ 주택전시관 개관

### 81~84㎡대 남향·방4개 213세대...2029년 완공

대광건설은 19일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151-2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광주 산정 대광로제비앙’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4개 동, 전용면적 81㎡A 44세대, 81㎡B 106세대, 81㎡C 35세대, 84㎡ 28세대 등 총 21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중형 타입에 남향위주의 동 배치와 4베이(Bay) 4룸(Room) 혁신설계가 적용되고, 최상층에는 옥탑과 테라스 등 휴식 공간도 누릴 수 있다고 관계사는 전했다.

특히 산정지구의 수혜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대광건설의 설명이다.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 2023년 지구계획이 승인 이후 2025년 착공해 2029년 최종 완공할 계획이다. 산정지구는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3000㎡

(51만평) 부지에 1만3000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38㎡의 공원·복지 조성 등을 통한 녹지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남중심상업지구와 가까워 대형마트와 영화관, 시장, 은행 병원 등 인프라와 하남중앙초, 하남중, 월곡중, 산정중, 운남고, 장덕고, 광주여대 등 초·중·고·대학까지 학군도 조성돼 있다.

여기에 무진대로, 하남대로, 사암로 등을 통해 수완지구, 상무지구 등 이동이 편리하고, 제2순환도로, 운수IC, 무안광주고속도로 등 시외 진출입도 용이하다.

주택전시관은 광주시 서구 화동동 744-17에 위치하며, 사전방문 예약제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동시에 운영한다. 문의 전화 1522-3636.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보해양조와 만나플래닛 관계자들이 비대면 시대 주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 수출기업 FTA 담당자 교육 광주상의 25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25일 광주상의 지하교육장에서 지역 수출기업 FTA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중 FTA 개요 및 APTA 협정의 비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실무 등 내용을 중심으로 박현수 관세사가 7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수강 시 ‘인증수출자 점수’ 10점을 획득할 수 있어 올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 중이거나 갱신이 필요한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 교육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